

파주 출판단지 내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

어린이 출판사 속 어린이 도서관



▲ 4000여 권의 책이 꽂혀있는 서가. 책은 읽어서 좋기도 하지만 만지고 보면서 즐기기도 한다. 손때 묻은 그림책, 너털너털해 질 만큼 인기 좋은 동화책, '꿈꾸는 교실'의 책들은 사연이 깊다. 한 명이 기증한 책도 있지만 여러 명이 마음을 모아 서가에 꽂아 놓기도 한다. 책 뒷장을 보면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어 하나같이 예사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남의 책이 아닌 모두의 책이 된다.

▼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현관 입구 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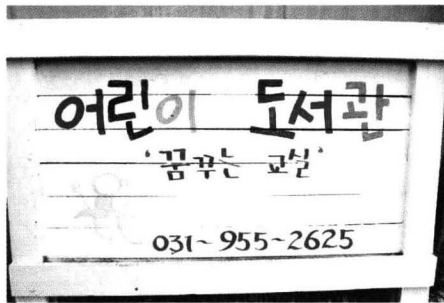


파주출판단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생겼다. 지난 9월 13일 다섯수레 출판사 사옥 2층에 문을 연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이다. 수많은 어린이 책 출판사가 있고 철마다 어린이 독자 유치를 위한 행사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책과 놀 수 있는 장소는 없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의 파주출판단지 입성은 반갑다.

교하의 변두리 길가에서 서점으로 출발했던 '꿈꾸는 교실'은 이제 명실 공히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30평 공간에 4천여 권 도서를 구비하고 개관 석 달 만에 회원 250명을 확보했다. 12명의 도우미와 도서관을 지키는 3명의 사서들은 도서관 정리부터 책 구입, 프로그램 개발로 분주하다.

130여 곳의 출판사와 60여 개의 출판관련 업체 그리고 30여 개의 상업시설이 입주한 출판단지 내에 주거시설이라고는 '헤르만하우스' 단 한 곳뿐이다. 어린이 이용객이 드물 성 싶은 이곳에 어떻게 도서관이 들어섰을까. '꿈꾸는 교실'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황수경 관장은 어린이도서관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 '근접성'이 배제된 이전을 두고 주변의 염려가 앞섰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의 입지 조건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장소를 옮기긴 했지만 출판단지 내에도 분명 필요한 공간



강요하지 않아도 꿈꾸는 교실의 강좌는 인기가 높다.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늘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작가와의 만남 등 활용 요건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작가와 아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책 만드는 공장을 견학하고 또 주변 자연상태 환경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이 곳 만큼 아이들이 책에 관한 모든 것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도 드물지 않겠어요? 책 자체 뿐 아니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책 친구가 되겠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가방 내던지고 달려오던 아이들도 어머니 회원들도 이제 없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렵게 찾은 새 동지는 여러 단점을 보완할 만큼의 특별한 여건이 꽤 있다. 황수경 관장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공간의 필요성이 사람

들을 불러 모은다' 는 신념이다.

“출판단지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린이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되고 싶어요.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어린이 전문 출판사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앞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설고 서먹하네요.”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얻는 수익금과 주변의 뜻있는 후원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꿈꾸는 교실' 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자유로운 독서문화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으로 성장하길 '꿈꾸고' 있다. **한**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황수경 관장 인터뷰

출판사와 어린이 독자 연결하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목표

출판단지 입지조건 살린 흥미로운 기회 제공할 터

“아직 관장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꿈꾸는 교실이 출판단지내에 터를 잡기 전까지 황수경 관장은 여태껏 '실장'으로 불렸었다. 도서관 이름이 '교실' 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자신 오랫동안 모 단체의 상담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사실 어린이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일산과 같은 신도시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저만 해도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을 사러 서점에 가려고 하면 책 한 권 값을 차비로 지출해야 했거든요. 소망이 현실이 되니까 놀랍죠.”

꿈꾸는 교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황관장이 직접 운영하던 어린이전문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라기보다 엄마와 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다. 2001년 교하 변두리의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던 물류창고를 꾸며 서점을 차려놓고 주민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회, 강좌를 마련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고 80평 공간은 곧 엄마와 아이들이 북적대는 동네 문화방이 됐다.

“서점은 수익사업인데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군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 했죠”

3년 동안의 서점운영을 정리하고 물류회사와의 계약도 새롭게 조정한다. 다음 도서관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실질적으로는 2003년부터 “꿈꾸는교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내부정비를 한 셈이다. 황 관장은 출판단지로서의 이전이 지금까지의 도서관 역할에 더 큰 기대를 붙여넣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도서관 이전 개관식에 앞서 출판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싶지 않아요. 책을 많이 보는 아이보다는 잘 노는 아이들이 좋잖아요. 이사하기 전 엄마들이 '꿈꾸는 교실' 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골벽적 했어요. 정말 읽어야 할 책,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책이 꽂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